

고은 불교대하소설

인간계 그림

금 륜 외곽을 삼엄하게 둘러싼 칠위산과 니만달라산 사이의 바다는 다른 일곱바다보다 크고 넓다.

그 큰 바다의 동남북사에 걸쳐 서로 험사리 건너오고 갈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인간계들이 그 큰 바다 위에 떠있는 큰 땅 위에서 마치 그곳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강한 집착의 뿌리를 내린 인간들이 살고 있다.

어디 있어'라는 잡지리의 편지를 듣고 삼새는 '헉! 소리도 그만 두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여백을 이 세상의 교사로 살다 일만에 들었고 그의 첫째리 제자 가섭은 그보다 더 많이 살기는 했으나 대개의 인간은 50에서 60이 장수였다. 그래서 동양 동북부에서는 인생 70은 예로부터 지극히 드문 일이라 해서 그런 장수는 큰 축복을 받기까지 한다.

이같은 인간계라는 삼과 죽음이 지루한 줄도 모르고 태고 이래 이어지며 되풀이되는 것이 이 세상의 처음도 끝도 없음을 말하는 것인 지 모른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아직 창원 진리 드러내지 않았으며 (宋端眞)

인간계란 그렇게 진리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며 그렇게 진리가 와서 인간의 탐욕과 망상과 함께 슬래잡기를 하고 있는 지 모른다. 그런데도 큰 바다는 바람부는 날 마음껏 울렁거리는 파도로 일하고 있다. 아마도 바다까지도 그렇게 해서 정진하는 사실을 그 누군가가 짐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124

으로서의 선업 악업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세상의 실상을 덧없이 보여주어 그 실상이 허상임을 깨닫는 도량이 되게 하기도 한다.

이 재재기는 작은 나라의 양민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괴로움 많은 일로 살아가는 상민이나 천민에게도 진리의 기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가혹한 세월의 장정이 있어야 하는가.

장대국은 4개이나 대국은 16개 중국은 500개 그리고 작은 나라 10만개의 삼부주만 해도 벌써 그곳이 번뇌의 여러 종류가 넘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동쪽 인간계나

그곳 인간의 신장은 삼부주 인간의 4배가 크다. 수명 5백세, 워낙 큰 사람들이라 흉소나 암소를 화해의 단위로 삼는 그런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북쪽 구토주의 인간은 삼부주 인간의 8배나 된다. 수명 1천세, 미인이 많은 곳이다.

이런 곳이야말로 삼부주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가를 반영하거나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보장받지 못하는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바로 인간이 인간만의 크기 이상을 지향하는 꿈은 이미 그런 다른 종류의 인간 현실을 만들어놓는 것에 대한 체형과 다를 바 없다. 꿈과 현실, 상상의 미래와

나와 삼부주의 한 고독한 삶에 대해서도 다른 인간계의 지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들어버린 나무 위에서 용의 울음소리가 나오는가(枯木裏鳴?)

“언제 내가 웃입고 태어났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우너는 부끄러웠지만 나체생활을 시작했다

귀계 중생이 되어 그의 키는 무려 5일로 미터나 되는데 머리 꼭대기는 구름 속에 나와 고개를 사방으로 찌르는 공경이 들어 있었다. '식토(食吐)'라는 아귀가 되어 다른 중생이 먹은 것을 그 과식증으로 보낸 더러운 음식인 구토물을 구름 위에서 뒤지고 있는데 끝내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생전에 저 혼자만 맛있는 것을 독점해서 차지와 이웃에게 주지 않은 죄업으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먼저 부처가 되겠다고 다른 동료와 도반들을 무시하고 혼자서만 공부에 탐착한 죄업이기도 한 것일까.

아귀계에 대해서는 좀더 얘기할 것이 있거니와 삼부주 바로 밑의 금륜 수륜의 지하에 충흥으로 만들어진 지옥계야말로 처절한 암흑세계이며 극단적인 세계이다.

이것이 바로 삼부주의 인간이 한발만 내려디면 들어갈 수 있는 지옥의 첫걸음을 그 바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아슬아슬한 사실도 인간과 지옥이 얼마나 그 동질성을 가진 이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지옥이 저기 있다고 말하지 말라 지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 지옥이란 바로 그대 마음 속 가득한 그림인 것을 왜 모르라 왜 모르라

우너에게서 이런 노래가 입을 심심파악으로 열자 흘러나왔다. 그 자신의 노래인지 그 누구의 노래가 그의 입을 빌려서 나왔는지 모른 채.

그는 아무도 없는 무욕도에서 한참 여름을 맞고 있었다. 지난 날과 달리 땀을 많이 흘리는 터라 날마다 땀에 젖은 땀을 하기 싫어서 차려온 옷들을 다 벗어버린 채 아무도 오지 않는 삼 한 구석에서 나체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주저되지 않는 바 아니었다. 파도에도 거북했고 갈매기들한테도 부끄러웠다. 더구나 그의 바위굴 속에 들어가면 한참 땀이 들어가며 굴안의 시원하고 고요 가운데서도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 내가 웃고 태어난 세상 이인가

랄 오리 실낱 찢지 않은 뿔겨승이 빗땀이로 응애! 응애! 응애!

그림·조항숙



4곳의 인간계 중에서 조용한 날 없는 삼부주는 실상이 허상임을 깨닫게 하는 도량

인간계에 펼쳐진 바다는 다른 바다들과 달리 단수가 아닌 염수이다.

인간계의 남쪽 삼부주는 10만개의 작은 나라까지 크고 작은 여러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로 네 나라가 강성해서 그곳의 왕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운명도 움직이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장대국의 통치자가 뜻밖 하나 뽑아 심상품으로 혹 붙여버리면 바로 그 이웃에 응기증기 속해있는 작은 나라의 왕들은 예위! 예위! 하고 마구 재채기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었다.

삼부주야말로 바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

북쪽 인간계보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알려지지만 바로 이런 괴로움의 땅인 삼부주에서 여러 부처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기도 하다.

이 세계에는 영부-장부-나무, 혹은 삼부나무라는 교목(敎木)이 있는데 이 열매의 나무는 4-5월 무렵 화려한 꽃을 피우고 진한 보라빛 열매를 맺는다.

그런 나무에서 세계의 이름이 된 것도 매우 종류적인 격조가 없지 않다.

해가 삼부주에 내리쬐면 삼부주를 멀리하는 동안 어느덧 서쪽우화주가 나타나는 다.

과거의 현실이 이렇게 한층속일 줄이야 삼부주의 큰비 직전에 이어지는 게임의 행렬인들 모를리 없지 않았는가.

동쪽의 승신주는 인간의 신장 2배 이상인데 평균수명 250세. 땅 모양은 반달과 같다. 사람들의 성격은 지극히 온순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

이와 비하면 삼부주는 건설과 파괴, 공화화 진영이 되풀이되며 항상 조용한 날이 없다. 우화주는 인동(人動) 모양의 대륙, 구토주는 자연과 물질이 풍부한 낙원인데 1천년 뒤에는 어디론가 옮기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네 곳의 인간계는 거의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삼부주의 한 정 초선왕 무욕도에 남겨진 우너는 그런 인간계의 여러 곳을 그의 회백되는 지혜로 하나하나 잠작하게 됨으로써 그가 사는 삼부주 이외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그것은 우너의 신령스러운 선함과 예시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하게

그런데 우너는 그런 네 곳의 인간계만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삼부주 부근의 바다 속에 아귀계가 있어 그곳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아귀 중생들의 인제 끝날지 모르는 굶주림의 극한까지도 알게 되었다.

아니, 그런 아귀계가 바로 삼부주로부터 아주 먼 곳에 있지 않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삼부주 인간계의 아귀적인 요소를 뜻하고 있는 지 모른다.

아귀란 먹을 것이 없는 세계이며 동시에 지하에의 극한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지 모른다.

아귀 33종류! 그 온갖 아귀중생의 실상을 그 어떤 중생도 어떤 보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이 없다. 놀랍게도 무욕도에서 한때 가장 배타적인 신심과 치열한 구도심으로 공부에만 열중했던 사담인 수원이 바로 아귀계에서 아직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다.

어느 상현달이 일찍 보이기 않게 된 캄캄한 밤의 명상 가운데 하나의 망상이 들어왔는데 그 망상 속에는 바로 수원이 아

동

그런데 우너는 그런 네 곳의 인간계만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삼부주 부근의 바다 속에 아귀계가 있어 그곳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아귀 중생들의 인제 끝날지 모르는 굶주림의 극한까지도 알게 되었다.

아니, 그런 아귀계가 바로 삼부주로부터 아주 먼 곳에 있지 않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삼부주 인간계의 아귀적인 요소를 뜻하고 있는 지 모른다.

아귀란 먹을 것이 없는 세계이며 동시에 지하에의 극한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지 모른다.

아귀 33종류! 그 온갖 아귀중생의 실상을 그 어떤 중생도 어떤 보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이 없다. 놀랍게도 무욕도에서 한때 가장 배타적인 신심과 치열한 구도심으로 공부에만 열중했던 사담인 수원이 바로 아귀계에서 아직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다.

어느 상현달이 일찍 보이기 않게 된 캄캄한 밤의 명상 가운데 하나의 망상이 들어왔는데 그 망상 속에는 바로 수원이 아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 마이트레야의 노래



"길 떠나는 자에게 용기와 지혜 있으라"

사망의 문은 고요하다. 보지 않은 법화봉의 명예진 구름과 일곱줄이 쏟아져내린다. 불인의 눈빛 눈부심은 상후의 배아까지 드러낸다. 임의날은 아슬아슬하다. 죽어간다. 사멸의 문이 모퉁이 여백을 보인다. 생애무변의 우주를 향해서 구애해줄 모라리는 끝과 승변을 향해서 떠나는 문학 속으로 들어 속으로.

어기 새로운 만남의 영연은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버린 한 장의 인내기도도 대본이다.

길 떠나는 자에게 용기와 지혜 있으라.

- (글을 알면서)에서



현대인에게 미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큰 물음을 던지면서, 불교의 깊은 정신세계와 그 철학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고 있는 이 책은 정신과 물질세계 사이에서 병행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물질과 마음에 대한 순수이해의 문을 열어 새로운 차원의 정신세계로 이끌어준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교리의 차이를 넘어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불교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길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현대인이 생활 속에서도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수행지침서이기도 하다.

★신국문 / 297쪽 / 저급급 서점에서 만나십시오

- 신채조 106 고요함과 깨어 있는 삶을 위한 참선초수필서 / 배만소설 저음 / 신국문 292쪽
- 한 권으로 보는 불교사 100장면 세계의 탄생에서 상생스님의 일찍이 지음 / 신국문 436쪽
- 그대도 사물은 하늘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충실한 통찰! 이무영 편저 / 신국문 356쪽
- 생애의 눈동자 200년전서한 통서, 고전 200종을 깊이있게 해설한 본국 저서 / 반지민 편저 / 신국문 500쪽
- 한 권으로 보는 세계명작 111선 고전 걸작 현대 명작 111선 영신서원 기획특 권교수연구 / 신국문 432쪽
- 한 권으로 보는 한국명작 111선 우리 소설 명작 111선의 내용과 작품 해설 김복호 저음 / 신국문 467쪽

불교인들의 민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봄이 오는 소리 날마다 봄은 날이 되소서

大地를 적시는 빗방울 소리 가슴에 화 거둔다. 조그만 돌길 끝에도 따뜻한 호수의 승경이 살아 숨쉬고 산아람 불어오던 겨울은 지나고 사랑을 꿈속이 내리는 봄아람 베풀 줄소리

바람 가이저도 겨울잠 깨고 일말을 터뜨리는 축삭발 상공한 불 베풀을 생기를 버금고 불명 떠스한 온기가 대지를 근근하게 감싸며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노래하 피 바람은 춤을 춘다 내 그리움 또한 그에게 이르고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함장 (법명: 無憂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 (불교문화예술원 원장)의 생필(眞本) 반야심경

玉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雲藏法師 禪筆 硯會
☎ (02)242-0331 · 242-0255